

##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과 고전적 반심리주의\*

강규호\*\*

### I. 서론

프레게는 자신의 철학적 이력을 발전시키는 주요 시기들에 사고행위 개념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빈번하게 논의했다.<sup>1)</sup> 그러나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가 사고행위 개념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했다는 해석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본래 논리학에서 논리적 사고행위 개념이 중요한 탐구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3587)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1) 프레게는 초기 저작들인 『개념표기법』과 「개념표기법의 학문적 정당화에 관하여」, 그리고 후기 저작들인 「사고내용」과 「수학과 수학적인 자연과학들의 인식의 일천들」에서 사고행위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가 사고내용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1892년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이전 그리고 「사고내용」을 발표한 1918년 이후, 그는 분명 사고행위 개념에 주목하며 사고내용 개념과 사고행위 개념을 최대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특히 러셀의 역설 이후 논리주의 기획이 좌절된 후기도 그는 사고행위에 대한 성찰만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욱 명료한 인식론적 관점을 가지고 사고행위 개념을 발전시켜 갔다.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1, 8.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sup>2)</sup> 그들의 이러한 해석은 프레게가 현대논리학의 창시자로서 사고행위 개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수의 저작들에서 사고행위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철학적 업적인 반심리주의 이념과 연관이 있다. 그는 당대의 논리학자들이 논리학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주로 심리적인 사고 과정을 탐구하는 데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며, 그러한 심리적 과정은 논리학이 아닌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반심리주의 이념에 따라 논리학을 심리적 사고 과정을 탐구하는 심리학과 최대한 구분하려 했으며, 당대의 심리주의적 조류를 거슬러 심리학이 아닌 논리학에 오히려 보편학과 근본학의 지위를 부여했다.<sup>3)</sup>

두 번째 이유는 프레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더밋의 주장이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프레게는 인식론을 철학의 근본 분야라 여기는 데카르트적 전통에 반기를 들었고, 언어적 전회를 일으키며 언어분석철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프레게가 철학의 탐구 방향을 심리학이나 심리철학의 영향 하에 있던 사고행위의 철학으로부터 논리학과 직결되어 있는 사고내용의 철학으로 전환시켰다고 보았다. 프레게의 철학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더밋은 프레게가 경험론적 전통에서 벗어나 인식론에 매우 제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행위 개념을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수많은 프레게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4)</sup>

2) 프레게가 다수의 저작들에서 사고행위에 대해 자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행위’라는 용어는 더밋의 유명한 프레게 연구서들의 색인은 물론, 슬루가나 커리와 같이 더밋을 비판한 대표적인 프레게 연구자들의 저서들의 색인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3) Kenny, A. (1995). Frege. Oxford: Blackwell, 210.

4)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665-684; Dummett, M.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세 번째 이유는 프레게 원전에 대한 영어 번역의 문제와 연관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영미철학 연구자들은 프레게의 철학을 연구할 때 영어 번역에 의존함으로써 프레게가 ‘사고행위(das Denken)’와 ‘사고내용(der Gedanke)’을 독일어로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에 크게 유의하지 않았던 듯하다.<sup>5)</sup> 프레게의 저작들을 번역할 때 기존의 영미권 번역자들은 당연히 두 용어를 구분하여 ‘thinking’과 ‘thought’로 번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t’가 두 용어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는 이유로 ‘der Gedanke’는 물론 ‘das Denken’까지도 대부분 ‘thought’로 번역해왔다. 이러한 부정확한 번역은 영미철학 연구자들이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에 더욱 주목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프레게 철학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초래되었다.<sup>6)</sup>

본고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을 그의 당대에 유행했던 심리주의, 그리고 그의 주요 이념들인 반심리주의와 플라톤주의와 연관 지어 규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당대에 유행한 고전적 심리주의와 관련하여 프레게가 논리학자들에게 무시하도록 권고한 사고행위가 생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주관적 관념을 산출하는 심리적 사고행위였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프레게의 반심리주의와 관련하여 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

University Press, 4-14, 22, 26, 127-129; 20세기 프레게의 반심리주의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자 그의 플라톤주의 또한 유명해졌다. 프레게가 분명 비실제적인 사고내용을 실제로 파악하는 논리적 사고행위와 연관된 인식론적 난제로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논리학을 심리학과 달리 올바른 사고행위의 규칙들을 제공하는 규범학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플라톤주의가 주목받게 되자,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은 그의 사고내용 개념에 주로 주목할 뿐, 그의 사고행위 개념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5) 프레게는 ‘사고내용’에 대해 약정적 정의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고내용과 사고행위를 모두 가리킨다는 점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는 사고내용에는 진리치 부여가 가능한 반면, 사고행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내용과 사고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Frege, G. (1979). *Posthumous Writings*. tr. P. Long & R. White, Oxford: Blackwell, 135-136.
- 6) 이런 식의 영어 번역은 철학자들에게 프레게가 ‘사고행위’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고행위의 철학과 대립하는 사고내용의 철학을 발전시켰다는 부당한 주장을 지지하게 했다.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10-13.

논리학자가 심리적 사고행위를 논리적 사고행위라 여길 경우 논리학에서 어떤 특징들과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프레게 자신의 논리적 사고행위 개념과 관련하여 그가 왜 플라톤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기존의 해석과 달리 프레게가 사고행위 개념 자체에 무관심하지 않았음을, 나아가 그가 진정한 논리학에서의 사고행위라 여긴 논리적 사고행위가 고전적 심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사고행위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의 고전적 반심리주의 이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 II. 심리적 사고행위와 고전적 심리주의

고전적 심리주의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철학적 문제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이나 자연주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수학과 논리학과 같은 대표적인 객관학들조차 심리학의 한 분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심리주의로 발전해갔다. 19세기 독일 학계는 전반적으로 심리주의가 유행하기에 좋은 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경험 과학의 점진적 발달은 점차 철학을 선호하지 않게 했다. 특히 1830년에서 1870년 사이, 헤겔 관념론의 몰락은 철학에 대한 관심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으며, 자연과학이 여타의 학문보다 지식을 제공하는 데 탁월하다고 믿는 과학적 자연주의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철학에 개입한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은 헤겔 철학을 형이상적 사변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철학이 과학적이기를 요구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 향후 자연과학의 정확한 방법과 탁월한 성과들을 인정하고 그것의 절차적 충실성과 정확성을 답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학적 유토피론을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의 득세로 인해 당대 철학자들은 전통 철학이나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영감을 얻기보다는 자연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과 화학의 통합과학이던 생리학의 발전에 주목

하기 시작했다. 7) 그 결과 그들 중 일부는 심리주의자가 되어 인간의 심적 과정이 측정가능하다는 생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과정 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생리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을 탄생시켰다.<sup>8)</sup>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경험 과학의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학문이 심리학의 주요 탐구 대상인 우리의 사고행위나 관념과 연관되는 만큼 심리학에 근본학의 지위를 부여하여 모든 학문을 심리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했다.<sup>9)</sup>

이러한 고전적 심리주의 경향은 독일의 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논리학자들은 인간의 실제적인 사고행위를 탐구하는 심리학이 논리학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리학의 개념과 본성을 심리학의 용어들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이었다.<sup>10)</sup> 그들은 인간 유기체를 일종의 복잡한 생리적 기제로 간주했으며, 개개

- 
- 7) 당시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은 우리의 진리 이해가 개념들의 사변적 구성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감각 지각에 근거한다고 여기며 초감각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배제하는 감각주의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초감각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전통 논리학을 터무니없는 미신처럼 생각했다. 이후 자연주의를 발전시킨 생리심리학자들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우리의 의식 활동을 탐구했으나, 결국 현상주의나 주관적 관념론을 수용하는 파국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슬루가는 자연주의가 몰락한 근본적인 배경에 선형적인 것이나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가 있다고 진단했다.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7-18, 26-36.
- 8) 당시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은 우리의 심적 과정이 과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주로 신경 자극과 감각 인상의 관계나 물리적 자극과 심적 경험의 법칙적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심적 경험들이 충분히 비교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King, D. B., Viney, W. and Woody, W. D. (2013). *A History of Psychology*. Allen & Bacon, 234-235, 241.
- 9) 더밋은 19세기 후반까지 독일에서 헤겔 관념론이 지배적이었다고 믿었으며, 이로 인해 프레게가 헤겔 관념론과 연관된 심리주의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슬루가는 그의 이러한 주장이 헤겔 관념론이 이미 그 힘을 상실했던 당시의 학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고 비판했다.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684;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9.
- 10) 논리적 심리주의는 영국의 밀을 비롯해 독일의 지그바르트와 에르트만 등이 옹호하면서 19세기 중후반 독일에 널리 수용된 이념이다. 프레게는 에르트만과 초기 후설을 대표적인 논리적 심리주의자들로 지목했으며, 종종 그런 부류의 논리학자들을 ‘심리학적 논리학자들’이라

인의 특수한 사고행위, 주장행위, 추론행위와 연관된 심적 사실들을 심리학이나 생리학의 용어들로 설명하며 개념, 명제, 논증과 같은 논리학의 주요 대상들이 인간의 인지적인 사실들에 의존하거나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sup>11)</sup> 당시 헬름홀츠는 감각생리학자로서 생리심리학적 구상을 제시했으며, 그의 구상과 방법을 계승한 분트는 실험심리학의 기반을 마련하며 심리학의 지위를 격상시켰다.<sup>12)</sup> 두 사람 모두 논리적 사고행위의 결과물인 논리적 내용이 두뇌 활동의 자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이었다. 우선 헬름홀츠는 논리학에 대한 밀의 심리학적 해석에 크게 공감하며, 논리학의 탐구 대상들이 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감각 지각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sup>13)</sup> 그에 따르면 개념은 감각 지각이라는 생리적 활동의 산물로 이러한 개념을 형성하는 우리의 능력은 뇌의 분자 구조에 의존한다. 그리고 개념 복합

---

불렀다. 그가 볼 때,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유사한 심리학들, 가령 경험심리학, 생리심리학, 실험심리학, 정신물리학, 정신생리학 등을 탐구하여 논리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리학자들이었다. Frege, G. (2016).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tr. P. A. Ebert, M. Rossberg & C. W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XV-XXVI; Frege, G. (1984).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tr. M. Black. Oxford: Basil Blackwell, 200;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2.

- 11) Willard, D. (1972). *The Paradox of Logical Psychologism: Husserl's Way Ou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9(1), 94.
- 12) 헬름홀츠는 자신의 지각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활동을 신경섬유나 신경세포가 수행하는 반사 운동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는 관념들을 연합하는 두뇌 작용을 외부 신호에 반응하는 공명 현상이라 믿었다. 이후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열어 주로 내성법(introspection)을 사용한 분트는 심리학을 모든 심적 사실을 탐구하는 과학이라 규정하며 의식적 경험의 구조적 토대 및 의식적 요소와 생리적 요소가 결합하는 법칙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King, D. B., Viney, W. and Woody, W. D. (2013). *A History of Psychology*. Allen & Bacon, 241-251.
- 13) 영국 철학자인 밀은 독일의 고전적 심리주의가 도래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독일에서는 그의 『논리학 체계』가 여러 차례 번역되었다. 밀은 귀납적 방법론을 옹호하며 논리학을 판단에 기여하는 심적 작용들에 관한 학문이라 규정했다. 한편 밀에게는 심리학이 주관적인 심적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던 반면, 당대 독일 심리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생리학 개념들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생리 현상들과 연관된 학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경험론에 개입한 실재론자들이자 유물론자들이었다.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2;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 27.

물인 논리적 명제는 유사하고 반복적인 관념들의 축적과 보강을 통해 획득된다. 나아가 분트는 자신의 저서 『논리학』에서 전통 논리학을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로 광범위하게 재해석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내적 경험의 논리적 주체이므로 논리학이 지식을 산출하는 실제적 사고행위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를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에 따르면 오직 실험을 통해서만 마음의 객관학이 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비록 의식의 내용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어, 측정, 수학적 분석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심적인 사고 과정, 즉 심리적 사고행위를 탐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헬름홀츠와 분트를 포함해 당대의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은 감각 지각에서 시작해 추리행위로 이어지는 모든 심적인 사고 과정들을 일종의 생리적인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동일률이냐 배중률과 같은 논리법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사고행위를 지배하는 심리법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sup>14)</sup>

당시 심리주의가 득세하는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프레게는 초감각적인 것을 중시하는 전통 논리학의 개념과 정신을 고수하고자 했다.<sup>15)</sup> 그는 심리주의가 심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심리적인 존재자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조라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사조를 따를 경우 논리학이 개개인의 주관적 심리학으로부터 출현하게 된다는 이유로 논리학에 대한 심리주의적 해석에 격렬히 저항했다. 이러한 반심리주의 이념에 따라 그는 ‘사고행위’라는 용어를 논리적 사고행위가 아닌 심리적 사고행위, 즉 감각 지각으로부터 관념의 형성과 연합으로 이어지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사고 과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고 과정이 분명 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자 관심사라고 주장하며 심리적 사고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4)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12, 18, 30-31, 38;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263-265; 강규호 (2022).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6집, 152-153.

15) Kenny, A. (1995). Frege. Oxford: Blackwell, 211.

“어떤 감각생리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 그는 그의 감정, 상상, 사고와 전적으로 독립적인 사물들의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감각 인상에 있다고 믿는다. 그는 신경섬유와 신경세포가 그의 의식의 내용이라 여기지 않고, 반대로 그의 의식이 신경섬유와 신경세포에 의존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는 눈에서 굴절된 광선이 시신경 말단을 건드리며 특정한 변화인 자극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로부터 무언가가 신경섬유를 거쳐 신경세포로 전이되어 신경계에서 추가적인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며, 색깔 인상들이 일어나 우리가 나무의 관념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하도록 결합할지 모른다.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사건들이 나무와 나의 관념 사이에 개입한다. 나의 신경계에 있는 사건들만이 나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으며, 나무에 대한 모든 관찰자들은 그의 특수한 신경계에 그의 특수한 사건들을 가진다.”<sup>16)</sup>

여기서 프레게는 당대 심리주의자들이 모든 심적 현상을 생리해부학적 기반을 가진 자연현상들이라 여겼음을, 나아가 논리적 사고행위를 생리적 과정을 통해 관념을 형성하는 심리적 사고행위라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사고 과정에 있는 요소들, 가령 신경섬유와 신경세포, 그리고 물리적 자극들과 그것들의 전달 방식 등이 객관적이라고 가정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감각과 신경계의 물리적인 요소들에 의존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 대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감각 지각을 통해 형성된 감각 인상들에 있고, 이러한 인상들의 결합이 관념을,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의 연합이 사고와 판단, 그리고 추론을 구성한다고 믿었다.<sup>17)</sup> 결국 그들은 논리학의 주요 탐구 대상이 개개인의 심리적 사고행위라고 믿으며 논리학이 심리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라 여긴 논리적 심리주의자와 달리, 프레게는 개별 사고자의 의식에서 진행되는 순수심리적인 작용만을 심리적 사고행위라 여겼다.<sup>18)</sup> 그에게 있어 심리적 사고행위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특

16) Frege, G. (1997). *The Frege Reader*. ed. M. Beaney, Oxford: Blackwell, 338.

17) Frege, G. (1997). 342; Frege, G. (1979). 144-145.

18) 프레게는 심리적 사고행위가 일종의 내적 대화로서 개별 사고자가 사적으로 말하는 행위와



수한 마음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가 사적인 관념을 소유하게 되는 심적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사적이고 주관적이다.<sup>19)</sup> 따라서 그는 개개인의 특수한 심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과업이며, 이러한 심적 과정은 심리학에 적합한 제재이기 때문에 논리학은 결코 심리학의 분과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sup>20)</sup> 나아가 프레게는 심리적 사고행위가 사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심적으로 관념화하는 일종의 상상행위라고 지적했다.<sup>21)</sup> 후설과 같이 심리학과 논리학을 혼동하는 심리주의자들은 마음속 상상행위를 통해 모든 대상을, 심지어 모든 언어적 표현의 객관적 의미까지도 관념으로 바꿔버린다. 결국 프레게는 그들이 상상력까지 관념화하며 우리가 사실상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관념을 가진다고 상상하거나 공상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up>22)</sup>

### III. 심리적 사고행위와 반심리주의

프레게는 당대 논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특히 심리적 사고행위와 논리적 사고행위를 명확히 구분했더라면, 극단적인 자연주의나 경험주의로부터 고전적 심리주의가 도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3)</sup> 이와 관련해 그는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라고 여길 경우 어떤 특징들과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유사하다고 여겼다. Frege, G. (1979). 270.

19) 프레게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에 널리 공유되던 경험주의적 견해이자 심리주의적 견해이며, 오늘날의 인지심리학자들도 수용할 만한 견해이다.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47 n.29.

20) Frege, G. (1980).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tr. H. Kaal. Oxford: Blackwell, 67.

21) Frege, G. (1980). 163.

22) Frege, G. (1984). 135, 197, 207.

23) Frege, G. (1979). 100, n.\*.

첫째,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할 경우 논리학자는 애초에 출발점으로 삼았던 실재론적 가정을 결국에 가서 부정할 수밖에 없다.<sup>24)</sup> 심리주의자들은 우리가 생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외부 실재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념을 형성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프레게는 광선이 물리적 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한다는 믿음, 이러한 자극이 우리의 경험에 직접 주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생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감각 인상이 산출되며 이러한 인상들로 관념을 형성한다는 믿음 등 심리주의자들의 다양한 믿음이 사실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그들이 이 모든 믿음을 단순한 가설이라 여기며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단지 관념들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관념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심리적 단계들을 각각의 관념들로 경험할 뿐이다.<sup>25)</sup>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실재가 아니라 심리적 사고행위의 결과물인 관념만을 경험하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의식의 내용은 관념뿐이라고 주장하도록 강요받는다. 결국 그들은 외부의 물리적 대상이 감각 지각을 통해 우리의 감각과 의식에 직접 제시된다는 실재론적 출발점을 부정하고, 객관적 사실이나 법칙을 단순히 주관적 관념으로 환원해버림으로써 실재론의 대척점에 있는 극단적인 주관적 관념론에 빠져들게 된다.<sup>26)</sup>

둘째,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할 경우 논리학자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존재자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창조한 주관적 관념들이라 여기게 되는데, 이는 커다란 논리적 혼동이자 착각이다. 프레게가 볼 때, 심리주의자들은 물리적 대상을 ‘관념’이라 부르는 놀이에 심취해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상상해버린다.<sup>27)</sup> 여기서 ‘관념’이란

24) 프레게는 심리주의자들이 실재론적 출발점을 가정한 이유가 단지 관념화라는 순수심리적인 과정보다는 생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rege, G. (1979). 144.

25) Frege, G. (1997). 338-339, 343.

26) Frege, G. (1979). 144.

27) Frege, G. (1984). 198-199.

전통 인식론과 심리학이 말하는 의식적 내용과 사고 주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심적 사태들을 통칭하는 순수심리적인 용어이다. 프레게는 관념이 우리 각자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창조되므로 변화하는 의식 상태에 의존적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결정적이기 때문에 공유나 소통이 불가능한 개별 의식의 사적 내용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했다.<sup>28)</sup> 따라서 그는 논리학의 탐구 대상에서 관념을 제외시켜야 하며, 주관적 관념의 창조와 형성으로 귀결되는 심리적 사고행위는 논리학과 무관하다고 역설했다.<sup>29)</sup> 그에 따르면 논리학의 제재인 대상과 개념, 그리고 사실과 법칙은 결코 우리가 관념화한 주관적 산물로 치부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대상과 개념 간의 포섭 관계를 파악하는 사고행위를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재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행위라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을 비롯한 심리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대상들이 개념에 포섭될 때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서로 유사해진다고 여기며,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던 논리적 관계를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상상이라는 심리적 사고행위를 논리적 사고행위라 오해한 탓에 논리적인 내용이 주관적 관념이라 여기며 관념과 개념의 경계, 상상행위와 논리적 사고행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sup>30)</sup>

셋째,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할 경우, 논리학자는 논리적 사고행위가 인식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게 된다. 심리주의자들은 감각 지각을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 여기며 극단적인 경험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경험은 항상 잘못된 믿음을 동반할

28) 강규호 (2022).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6집, 155-156.

29) “물리학이나 수학 혹은 논리학에서 ‘관념’이라는 단어는 결코 사용되어선 안 된다. 아니면 그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관념은] 심리학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Frege, G. (1984). 135.

30) Frege, G. (1984). 197-198; Frege, G. (1979). 145.

가능성을 지낸다.<sup>31)</sup> 감각 지각은 감각 인상을 형성할 때 감각적 착각을 일으켜 우리를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가령 빛의 회절 현상이나 굴절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착시가 감각 지각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장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주의자들은 감각 지각을 가장 신뢰할만한 인식의 원천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착시로 인해 잘못 형성된 관념들이 외부 대상에 상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논리적 사고행위의 대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비록 감각 지각이 우리에게 외부적인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식의 주요 원천들 중 하나라고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감각 지각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감각 지각은 논리적 원천이나 기하학적 원천과 공조해야만 착각 없는 지각, 나아가 고차적인 학문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sup>32)</sup>

넷째,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할 경우, 논리학자는 논리법칙과 심리법칙을 혼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논리적 오류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심리주의자들은 논리법칙을 개개인의 사고행위를 일반화한 심리법칙으로 간주하는데,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성향을 논리학에 그대로 반영하며 논리법칙의 규범성을 부정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프레게는 논리법칙과 심리법칙을 잘못 동일시하는 견해를 심리주의로 치부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부당한 추론을 일삼는데, 이때 논리법칙은 올바르게 못한 사고행위에 대해 처방력을 발휘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유도한다. 그러나 심리주의자가 주장하듯 심리법칙이 개개인의 심적 사고 과정을 일반화한 법칙이어서 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논

31) Frege, G. (1979). 3.

32) 프레게에 따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인식의 원천들이 있다. 인식의 논리적 원천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초래하는 오류로부터 우리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한편 인식의 원천들 중 하나인 감각 지각은, 우리가 정당하게 무한을 인식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을 산출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한을 획득할 수 없다. 무한은 인식의 기하학적 원천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Frege, G. (1979). 131, 267-269, 274.

리학은 논리적 오류 자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sup>33)</sup> 그리고 만일 심리법칙이 타당한 추리의 법칙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추론을 수행할 수 없다.<sup>34)</sup> 이렇게 볼 때 논리법칙이 심리법칙이라면, 논리법칙은 규범성과 처방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올바른 사고행위와 올바르지 않은 사고행위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논리법칙의 처방대로 수행되지 않는 수많은 추론 행위들이 있다는 자체가 심리법칙과 논리법칙의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며, 인간의 사고행위가 매개되어 있는 이 두 법칙의 유사성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성향에 직면하자마자 급속히 사라진다. 다시 말해 심리법칙은 위반불가능한 반면, 논리법칙은 위반가능하다. 따라서 논리법칙은 심리법칙이 아니며 우리 각자의 마음과 무관하게 존립한다.<sup>35)</sup> 그것은 사고내용들 간의 필연적 관계를 기술할 뿐, 우리 인간의 심리적 사고 과정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섯째, 논리적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할 경우, 논리학자는 사고행위의 인과적, 심리적, 역사적 요소에 주목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사고내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라 여기는 논리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sup>36)</sup> 프레게는 관념의 기원과 발생에 주목하며 논리적 사고행위의 심리적 원인들과 그것들이 작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설명하려는 모든 심리주의적 시도가 진리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37)</sup> 그에 따르면 심리학은 주로 우리의 믿음과 그것을 참이라 여기게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이 형성되는 조건이나 과정을 탐구하기 때문에 논리학과 다르다. 또한 인간이 사고할 때 나타나는 관념들의 변화는 불분명한 심리적 과정이기 때문에, 심리학

33) 심리주의자들이 선호할 만한 ‘사고법칙’이라는 용어는 논리학자들이, 자연법칙이 세계 내 사건들을 지배하듯, 심리법칙이 사고행위를 지배한다는 견해를 가지도록 부추긴다. Frege, G. (1997). 325.

34) Frege, G. (1979). 4.

35) Frege, G. (1960).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 J. L. Austin. Oxford: Blackwell, x ix.

36) Frege, G. (1979). 3.

37) Frege, G. (1960). x viii; Frege, G. (1979). 2; Frege, G. (1984). 197.

의 탐구는 부정확하게 되며 논리적 탐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레게는 우리가 사고내용의 참을 승인하는 판단행위와 객관적 참을 강력하게 연결하며 우리의 주관적인 심적 상태나 과정이 논리적 정당화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38)</sup> 그에 따르면 논리학의 주된 관심사인 논리적 정당화는 인과적으로 제약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사고행위나 심리법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다.<sup>39)</sup>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미신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들은 심리법칙에 따라 발생하며, 객관적 참과 무관하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라고 여기게 된 방식에 대한 심리주의자의 설명은 논리적 정당화에 대한 해명을 대체할 수 없다. 논리적 정당화의 근거는 이미 승인된 다른 진리들에 있으며, 논리학자는 오직 그런 진리들에만, 그리고 그런 진리들 사이의 의존관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40)</sup>

#### IV. 논리적 사고행위와 플라톤주의, 그리고 반심리주의

만일 심리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심리적 사고행위가 논리적 사고행위가 아니라면, 프레게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논리적 존재자나 논리적 관계를 발견한다고 생각했는가? 그가 말하는 논리적 사고행위란 무엇인가? 이 물음과 관련해 우선 그는 당대의 논리학자들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사고행위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내용을 철저히 구분하기를 원했다.<sup>41)</sup> 그리고 그

38) Frege, G. (1980). 78-79; Frege, G. (1979). 132.

39)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인과적으로 제약되고 심리학의 용어들로 설명가능할지라도, 논리적 정당화는 우리의 의식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문제도, 다른 방식이 아닌 일어난 방식대로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는 문제도 아니다. Frege, G. (1979). 4; Frege, G. (1997). 208.

40) Frege, G. (1979). 1, 3; Frege, G. (1960). 2.

41) 프레게의 고전적 반심리주의는 사고행위와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볼차노에 뿌리를 둔 오스트리아-독일계 논리학 전통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프레게가 심리학에 적합한 제재인 사고행위와 논리학에 적합한 제재인 사고내용을 항상 철저히 구분했다는 더

는 이러한 구분이 논리학을 심리학과 구분하는 데, 그리고 심리주의로부터 논리학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sup>42)</sup> 심리주의자들이 논리적 사고의 유일한 대상이 사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논리적 내용 또한 심리적 사고행위와 같이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고 여긴 데 반해, 프레게는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객관적인 논리적 사고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내용이 관념처럼 우리의 의식에서 발생하거나 창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sup>43)</sup> 따라서 그는 논리적 사고행위의 대상이 주관적 관념일 가능성을 배제하며, 사고내용이 심리적 사고행위와 무관하게 참인 논리적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파악과 재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설명이 사고행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4)</sup>

프레게가 볼 때, 심리주의의 근저에는 사고내용과 사고행위에 대한 자연스런 혼동이 있으며, 이러한 혼동의 배경에는 진리의 본성에 대한 심리주의자의 잘못된 믿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당시 심리주의자들은 심리학의 방법을 통해 정신 현상을 탐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논리학에 개입했는데, 프레게는 그들이 객관적인 진리 자체, 진리 발견에서 보조적 역할만 하는 관념, 그리고 관념을 발생시키는 감각 지각과 심적 과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

밋의 지적은 올바르다. 사실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은 막연히 프레게가 사고행위와 사고내용을 철저히 구분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프레게가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논리적 사고행위가 아닌 심리적 사고행위와 구분했다고 주장해야 했다.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2; Dummett, M.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28.

42) 프레게는 당대 심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학문 탐구의 제일 원칙으로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논리적/객관적, 그리고 심리적/주관적이라는 이 쌍들이 공의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Frege, G. (1960). x x ii.

43) Frege, G. (1979). 127; Frege, G. (1960). vi.

44) Frege, G. (1979). 133, 136, 148; “사람은 사물을 보고 관념을 가지며 사고내용을 파악하거나 사고한다. 그가 사고내용을 파악하거나 사고할 때 그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며,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게 될 뿐이다. 그것은 사물을 보거나 관념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관계이다.” Frege, G. (1997). 337 n.E.

심리주의적 경향을 유발했다고 보았다.<sup>45)</sup> 그리고 그들은 논리학의 전통적 개념과 초감각적 본성을 배반했기 때문에 진리의 객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프레게에 따르면 논리학은 관념을 형성하는 심리적 사고행위와 같은 경험에 대해 아무런 가정도 하지 않는 선험학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같은 사실학에 그 기반을 둘 수 없다.<sup>46)</sup> 결국 그는 논리학자가 심리적인 것들이 지닌 주관성과 판단 주체에 독립적인 진리 자체의 객관성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레게는 논리학을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제3영역에 지정하고 실재론적 사고내용을 그 영역에 할당하는 플라톤주의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논리적인 사고내용을 당대 심리주의의 주요 탐구 대상인 심리적 사고행위와 철저히 구분하고자 한 것, 즉 반심리주의적인 구분이 그가 플라톤주의적 발상을 가지게 한 매우 중요한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지금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무시되어 온 것 같다.<sup>47)</sup> 그리고 이러한 무시는 프레게의 철학에서 사고행위 개념이 지니는 지위와 역할을 평가절하하게 했다. 그러나 분명 프레게가 플라톤주의적 견해를 가지게 된 데에는 그의 반심리주의적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심리주의 사조가 논리학의 본성과 개념을 위협한다고 확신했고, 플라톤주의적 견해가 이러한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sup>48)</sup>

“나는 객관적이고 비실제적인 영역을 인정한다. 반면 심리학적 논리학자들은 비실제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곧장 간주한다. 하지만 판단 주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무언가가 왜 실제적이어야 하는지, 즉 감각에

45) Frege, G. (1979). 145.

46)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3-105.

47) “우리는 사고행위를 사고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이라 여길 수 없다. 단순히 사고내용을 사고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 사고내용이 단지 사고행위로 인해 존재하게 되거나 그것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동일한 사고내용이 존재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존재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 ... 더군다나 두뇌는 사고내용을 분비하지 않는다.” Frege, G. (1979). 137.

48) Frege, G. (2016). XIII.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객관성과 실제성이라는] 개념들 사이의 그런 연결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 심리학적 논리학자들은 객관적이면서 비실제적인 것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개념을 관념이라 여기고 그것을 심리학에 할당한다. 그러나 참인 사태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달성될 리 없다.”<sup>49)</sup>

프레게는 심리주의에 대항해 논리학과 진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심리적 사고행위와 무관한 순수논리적인 존재자들을 제3영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프레게에게 있어 우주는 세 영역의 존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sup>50)</sup> 제1영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의 영역이고, 제2영역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자의 영역이다. 마지막 제3영역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비실제적인, 수, 개념, 사고내용 등이 거주하는 논리적 존재자의 영역이다. 특히 그는 초감각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들, 즉 참인 사고내용들을 제3영역에 할당했다.<sup>51)</sup> 그는 논리적 사고행위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사고내용이라 주장했다. 사고내용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이 아니며, 심리학의 실험이나 관찰,

49) Frege, G. (2016). XVIII.

50) Frege, G. (1997). 342.

51) 프레게는 특정한 사고내용이 참인 사고내용들의 무리 중 하나나 몇몇 사고내용들로부터 따라 나올 경우 그것을 그 무리에 추가하여 사고내용들의 새로운 무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3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Frege, G. (1984). 334;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견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설 현상학의 영역이 프레게의 객관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견해가 논의되어왔다. 이런 비교가 매력적이긴 하나, 그들의 입장에는 분명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프레게는 주로 객관적 사고내용을 표상할 수 있는 논리 언어를 고안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논리학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논리학이 근본적이다. 반면 후설에게는, 비록 논리학과 관련해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성찰들이 발견될 수 있을지라도, 현상학이 경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순수 이론으로 논리학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또한 후설에게 현상학은 추론적인 분야이기보다는 기술적인 분야이며, 비록 그가 수학의 형식 언어나 수리 논리학에 주목했을지라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 일상 언어로 수행되는 현상학적 기술이었다.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1.

그것의 성과를 통해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대상도 아니다.<sup>52)</sup> 그것은 근본적으로 객관성, 추상성, 비실제성, 감각불가능성, 무시간성, 소유불가능성 등을 속성들로 가지기 때문에 제3영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sup>53)</sup> 반면 심리주의자들은 사고내용이 사고행위와, 그리고 참이 참이라 여김과 심리적인 성격을 공유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비실제적인 것을 모두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sup>54)</sup> 사고내용을 주관적 관념으로 치부하여 우리 각자의 심적인 내부 세계에 거주시켰다. 이에 대해 프레게는 실제성과 객관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심리주의자들이 실제적인 물리적 대상이 객관적인 것의 범주를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비실제적인 것의 영역을 주관적인 것의 영역과 일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볼 때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논리적 존재자들까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적 관념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했다.<sup>55)</sup> 그들이 신생 과학인 생리심리학을 앞세워 사고행위의 객

52) 사고내용은, 감각을 통해 지각가능한 물리적 대상과 달리, 지각불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대상과 달리, 그것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변형시킬 수 없어 비실제적이라는 점에서 제1영역에 속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주관적인 관념과 달리 심적 주체나 그의 마음에 존재-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주체들이 공유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적 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실제적이라는 점에서 제2영역에 속할 수도 없다. Frege, G. (1997). 30, 337-338, 342-343; Frege, G. (1979). 127, 138; 강규호 (2022).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6집, 153-158.

53) “사고내용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도, 관념도 아니다. 제3영역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은 관념과 마찬가지로 감각으로 지각불가능하지만, 사물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의식의 내용에 속하기 위해 소유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Frege, G. (1997). 336-337.

54) Frege, G. (2016). XVIII

55) 프레게는 심리주의자 에르트만이 판단 행위와 판단 내용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념과 실재를 구분할 만한 개념적 수단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일 에르트만의 주장처럼 모든 인식 대상이 관념과 같이 심리학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사실상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간단한 진술도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하늘이 푸르다고 말하고 싶더라도, 관념은 푸를 수 없으며 푸른 관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Frege, G. (2016). XX-XXIII.

관성을 보임으로써 논리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했다면, 프레게는 사고내용의 사고행위에 대한 우선성과 사고내용의 객관성을 보임으로써 논리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프레게의 플라톤주의적 견해로 볼 때, 논리적 사고행위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가? 일단 논리적 사고행위는 상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관념을 산출하여 소유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 사고행위가 아니다. 프레게는 여러 구절들에서 심리적 사고행위를 나타내는 ‘실제적 사고행위(das wirkliche Denken)’와 대비하여 논리적 사고행위를 나타내는 ‘순수한 사고행위(des reinen Denken)’ 혹은 ‘개념적 사고행위(das begriffliche Denken)’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sup>56)</sup> 이러한 대비는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우리의 모든 사고행위가 심리학의 탐구 대상만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는 심리적 사고행위와 전적으로 다르며 논리학자와 철학자의 성찰에 부합하는 사고행위 유형이 존재한다.<sup>57)</sup> 논리적 사고행위란 우리의 내부 세계가 아닌 제3영역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비실제적인,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행위이다. 일단 우리가 사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승인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을 표현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비록 논리적 사고행위가 사고내용보다 더 중요한 논리학자의 관심사는 아닐지라도,<sup>58)</sup> 그것이 사고내용이나 참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학자의 주요 관심거리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우리는 논리적 사고행위에 관한 프레게의 언급들을 통해 그것이 다음과

56) “경험적인 문장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실제적인 것에 대해 성립하며, 개념적 사고행위만이 이런 구속에서 어렵게나마 빠져 나올 수 있다.” Frege, G. (1960). 20; 여기서 ‘순수한 사고행위’는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고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프레게는 정확한 사고행위와 실제적 사고행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49.

57) Frege, G. (1960). x v - x vi.

58) Frege, G. (1979). 145; Frege, G. (1997). 362-363.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논리적 사고행위는 그것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의 개념표기법, 즉 새로운 논리 언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sup>59)</sup> 그는 논리학에서 일상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심리적 함축들로부터 자유로운 논리 언어를 고안하는 일과 심리주의와 투쟁하는 일로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반심리주의 이념에 따라 논리적 사고행위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 언어를 고안했다.<sup>60)</sup> 이렇게 볼 때 논리학자는 단순히 사고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순수하고 정확한 논리적 사고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논리적 사고행위는 생리적인 심적 과정을 거쳐 상상력을 통해 주관적 관념을 창조하는 심리적 사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력을 사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재인식하는 행위이다.<sup>61)</sup> 프레게가 지속적으로 사고행위 개념에 관심을 유지한 이유는 그것이 객관적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수단이라 여겼기 때문이며, 논리적 인식이 지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천들 중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심리주의에 따라 우리가 사고행위를 단순히 순수심리적인 과정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과정으로 사실이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프레게의 목표는 사고행위가 객관적인 존재자들인 대상, 속성, 개념, 관계, 사고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관념을 산출하는 상상력과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이성적 사

59) 프레게는 『개념표기법』의 부제를 “순수한 사고행위에 관한 형식 언어”라고 붙였으며, 그 책의 2부에는 “순수한 사고행위로서의 판단들에 대한 표현과 도출”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Frege, G. (1972). *Conceptual Notation and related articles*. tr. T. W. Bynum. OUP, 104, 136; “기호들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개념적 사고행위에까지 거의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기호를 다르지만 유사한 사물들에 적용할 때, 우리는 실제로 개별 사물을 더 이상 기호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통적으로 갖는 것, 즉 개념을 기호화한다.” *ibid.* 84.

60) “논리학의 소임은 낯선 모든 것, 즉 심리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논리학을 정화하는 일이며, 사고행위를 언어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소임은 언어의 논리적 불완전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하다.” Frege, G. (1979). 149; Frege, G. (1972). 111, 136.

61) Frege, G. (1979). 7, 127; Frege, G. (1960). 79.

고력으로 구분하고자 했으며, 전자를 심리학에, 그리고 후자를 논리학에 할당했다.<sup>62)</sup> 따라서 논리적 사고행위는 단순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관념을 창조하는 심리적 사고행위가 아니라, 이성을 가진 존재자들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 학문적으로 공유가능한 진리를 이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sup>63)</sup>

셋째, 논리적 사고행위는 불필요한 심리적 요소들을 가지지 않는 올바른 사고행위이며 그것을 관장하는 법칙은 심리법칙이 아니라 논리법칙이다.<sup>64)</sup> 논리적 사고행위는 논리적인 방식으로만 사고하는 이성적 사고력에 의해 구현되는 올바른 사고행위이다. 이성이 지향하는 인식적 상황이 최선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행위는 오류에 개입하지도, 관념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sup>65)</sup> 심리학의 목표가 실제적인 심적 과정들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논리학의 목표는 논리적 사고행위를 규정하고 처방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논리적 사고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형식적 규칙들을 명시하여 올바른 사고행위를 보편적으로 처방하는 것이다.<sup>66)</sup> 따라서 논리적 사고행위는 심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고행위가 아니라 사고행위의 본질인 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고행위이며, 본성상 심리적 사고행위의 실제적인 과정에 우선한다.<sup>67)</sup>

62) “논리학과 수학은 모두 개별 인간들이 소유한 마음들과 의식의 내용들을 탐구하는 과업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들의 과업은 오히려 그 마음에 대한 탐구일 것이다. 마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탐구 말이다.” Frege, G. (1997). 342.

63) “이성의 눈을 가리는 낯선 관념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개념을 순수하게 인식하는 데 수 세기가 걸리는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Frege, G. (1960). x ix; “사고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연결은 관념들의 연합과 다른 순서를 가진다. ... 사고행위와 관련하여 연결되는 것은 진정 관념들이 아니라 사물들, 속성들, 개념들, 관계들이다.” Frege, G. (1979). 174.

64) Frege, G. (1979). 12.

65) Frege, G. (1960). 71; 논리학자의 소임은 원래부터 심리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논리학을 정화하여 고립시키는 일이다. Frege, G. (1979). 149.

66) Frege, G. (2016). XV, XVII Frege, G. (1972). 103.

67)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두뇌의 화학 성분이나 그것의 해부학적 구조를 언급하는 심리법칙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그러한 언급은 논리법칙과 관련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논리법칙은 이러저러한 사람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인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인간

넷째, 논리적 사고행위는 특별한 의미로만 실제적이다.<sup>68)</sup> 객관적 사고내용은 사고 주체에 의해 논리적으로 파악되고 참이라 여겨짐으로써 작용한다. 비록 우리가 본질적으로 비실제적인 사고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고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통해, 즉 논리적 사고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sup>69)</sup>

## V. 결론

프레게는 고전적 심리주의의 학문적 오류와 위협을 올바르게 제시한 최초의 반심리주의자였으며, 모든 사고행위를 순수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했던 당대 심리주의자들과 달리, 논리적 사고행위와 심리적 사고행위를 서로 다른 유형들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고 있는 그의 반심리주의는 오늘날 까지도 철학자들이 유아론이나 상대주의적 귀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경계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과 철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sup>70)</sup> 그는 논리학과 심리학을 철저히 구분하고자 했으며, 우리의 사고행위 또한 두 분야에 서로 다른 유형들로 할당함으로써 철학적 성찰에 심리학이 개입하는 일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그는 논리학자들이 논리적 사고행위가 아닌 생리적인 사고 과정이나 심리적 사고행위를 자신들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반대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사고행위 개념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

이  $2 \times 2 = 4$ 라는 사고내용을 참이라 주장하는지, 아니면 거짓이라 주장하는지는 그의 두뇌의 화학적 조합에 달려 있지만, 이 사고내용이 참인지는 그런 것에 의존할 수 없다.” Frege, G. (1979). 148; “특정 문장이 참이기 위한 조건에 가령 충분한 양의 피가 적절한 상태로 뇌를 돌고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문장의 참이 이런 조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Frege, G. (1960). 91.

68) Frege, G. (1979). 127.

69) Frege, G. (1997). 344.

70) 강규호 (2022).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6집, 167-169.

경시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행위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심리주의 이념에 따라 신생 심리학이 규명하고자 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사고 과정이 철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뿐이다. 그리고 논리학자들이 순수심리적인 사고행위에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몰두하는 데 대해 경고한 것뿐이다.<sup>71)</sup> 그는 분명 새로운 논리학의 창시자로서 논리적 사고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철학 전면에 사고행위 개념을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논리학과 철학을 위협하며 그것들을 심리학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리주의가 횡횡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심리적 사고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논리학이 사고행위가 아닌 사고내용에 관한 철학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 논리학을 심리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근본학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했으며, 비록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사고행위와 사고내용의 관계, 즉 우리의 논리적 사고행위가 객관적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데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sup>72)</sup>

그러므로 향후 필자를 비롯해 철학자들이 앞서의 논의들을 주의해서 발전 시킨다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프레게의 고전적 반심리주의와 사고행위들에 대한 개념과 구분은 심리학적이지 않은 태도로 철학하는 행위, 즉 철학자에게 적합한 논리적 사고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철학의 적합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철학적 탐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나아가 현저하게 발달한 논리학을 갖춘 현대철학이 자기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논리학, 사고행위, 반심리주의, 심리주의, 플라톤주의

71) 분석철학의 전통은 프레게 이후 그 전개 과정에서 논리실증주의를 필두로 경험론적 요소들과 강력하게 결합되었으나, 이런 식의 전개는 프레게에게 아주 낯설었는지 모른다.

72) 프레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수많은 제재들에 공통적인 보편학의 가능성을 열고자 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사고내용의 객관성을 보존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행위를 요구한다. Frege, G. (1997). 336.

[참고문헌]

- 강규호 (2022).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6집.
-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ge, G. (1960).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 J. L. Austin. Oxford: Blackwell.
- \_\_\_\_\_ (1972). *Conceptual Notation and related articles*. tr. T. W. Bynum. OUP.
- \_\_\_\_\_ (1979). *Posthumous Writings*. tr. P. Long & R. White. Oxford: Blackwell.
- \_\_\_\_\_ (1980).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tr. H. Kaal. Oxford: Blackwell.
- \_\_\_\_\_ (1984).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tr. M. Black.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97). *The Frege Reader*. ed. M. Beaney. Oxford: Blackwell.
- \_\_\_\_\_ (2016).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tr. P. A. Ebert, M. Rossberg & C. W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 Kenny, A. (1995). *Frege*. Oxford: Blackwell.
- King, D. B., Viney, W. and Woody, W. D. (2013). *A History of Psychology*, Allen & Bacon.
-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illard, D. (1972). *The Paradox of Logical Psychologism; Husserl's Way Ou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9(1).



##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을 그의 당대에 유행한 심리주의, 그리고 그의 주요 사상들인 반심리주의와 플라톤주의를 통해 규명한다. 논리학에서는 사고내용 개념이 사고행위 개념에 우선하며 사고행위는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라는 프레게의 주장, 프레게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더밋의 주장과 그 지대한 영향, 그리고 프레게의 용어들에 대한 영어 번역의 문제로 인해 프레게의 사고행위 개념은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프레게는 현대논리학의 창시자로서 사고행위 개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저작들에서 사고행위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본고는 1장에서 지금까지 프레게가 사고행위 개념을 경시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당대에 유행한 심리주의와 관련하여 프레게가, 모든 사고행위를 순수심리적 사고행위라 여긴 당대 심리주의자들과 달리, 주로 생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주관적 관념을 산출하는 사고행위를 심리적 사고행위로 간주했다고 제시한다. 3장에서는 프레게의 반심리주의와 관련해 논리학자가 심리적 사고행위를 논리적 사고행위라고 여길 경우 어떤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프레게가 반심리주의와 관련해 진리의 본성에 대한 심리주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객관적 사고내용과 주관적 사고행위를 구분했음을 제시하고, 프레게의 플라톤주의와 관련하여 논리적 사고행위 개념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를 밝힌다.

[Abstract]

## Frege's Concept of Thinking and Classical Anti-psychologism

Kang, Gue-ho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Frege's concept of thinking and classical anti-psychologism. Frege's concept of thinking hasn't been noticed so far because of his assertion that the concept of thought has priority of the concept of thinking in logic and that thinking is an object of psychological research, the assertion and its force of Dummett who is the world's leading authority on Frege, and the problem of the English translation to Frege's terms. But Frege has taken a great interest in thinking as the founder of modern logic, and referred to it constantly in his writings. In chapter 1, I examine several reasons why Frege come to be known that he ignored the concept of thinking. In chapter 2, I suggest that unlike psychologists who considered all mental action as psychological thinking, Frege regarded an action that produces subjective ideas through physiological process primarily as psychological thinking in reference to psychologism which reigned at his epoch. In chapter 3, I show you errors that a logician committed when he considered logical thinking as psychological thinking in reference to Frege's anti-psychologism. Finally, in chapter 4, I show that Frege distinguished objective thought from subjective thinking to get rid of psychologists'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ruth, and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his platon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concept of logical thinking.

**[Keywords]** Logic, Thinking, Anti-psychologism, Psychologism, Platonism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9일 / 논문심사일: 2023년 04월 13일 /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21일

**[저자연락처]** [tosilence@naver.com](mailto:tosilence@naver.com)